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네 소원이 무엇이나?

(마 20:29-34)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예리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 갈 때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1.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맹인 두 사람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30절).

두 맹인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지금 내가 어떤 분 앞에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맹인은 간절히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맹인들에게는 간절함을 넘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 2. 그들의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맹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31절). 당시 맹인들은 저주 받은 사람들 이라 하여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맹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다.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더 소리를 외쳐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그 어떤 장애물이 다가 온다 할지라도 다 극복할 것이라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서 멈춰 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 주셨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32절).

모두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맹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맹인들은 지체 없이 눈 뜨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소원은 맹인들에게 피맺힌 절규였고,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으며, 그들의 모든 고통이 해결 될 수 있는 근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눈을 만져주시므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러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고백이 당신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써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마음의 소원, 평생의 소원, 자다가도 부를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나?"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분명한 응답을 받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What Is Your Desire?

(Matt. 20:29-34)

The text mentioned the record of an incident at the time when Jesus left Jericho to Jerusalem, He healed two blind men.

### 1. They had an obvious belief about who Jesus was

"Two blind men were sitting by the roadside,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going by, they shouted,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v.30).

Two blind men confessed, 'son of David!' which mean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Messiah, and Christ.

When we come before Jesus,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deeply meditate before whom we stand. Is Jesus is my Lord, and my savior?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believe and meditate "Is Jesus a son of God, and almighty eternal God of love?"

Two blind men earnestly shouted. But earnestness can be found in other religions. They had a real belief and confession of which Jesus is a savior which was beyond earnestness.

### 2. Their faith can surpass all of their obstacles

The crowd rebuked the blind who shouted to Jesus (31). At that time, while they were mocked and despised under a curse, the blind had to live their miserable life as beggars. Nevertheless, the blind in the text did not give up Jesus. Far from giving up, they shouted all the louder and called Jesus. In order to meet Jesus, no matter how difficult the obstacles they had, they had a strong desire to overcome it. Moreover, they believed that Jesus should stop to meet the lowly people like themselves.

### 3. Jesus Christ granted the blind's wish

"Jesus stopped and called them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v. 32)

Hearing the shouting of the blind that were mocked and despised, Jesus stopped and called them. And then, he asked them what they wanted from him. They promptly said that they wanted their sight. They were not ashamed of themsel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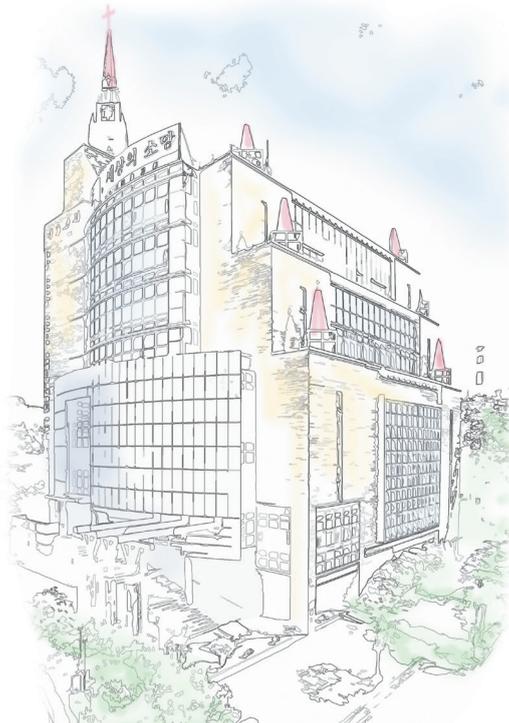
before Jesus Christ. Their wish was their painful cry, earnest desire, and the fundamental matter for the blind that could solve all of their sufferings. Jesus had compassion on them, touched their eyes, and let them receive their sight.

My beloved Christians,

Now we come out before Jesus Christ. Who is He who came to see us? Do you have a distinct confession of faith about Him in your heart?

If so, even though you may have any obstacle, do not give up, and seek him all the more.

By coming out to Jesus Christ with the desire of clear mind, the lifelong desire, and the beautiful desire that can be sung at any time of the night, when He asks you, "What is your wish?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faithful people replying with the obvious respon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서명철 목사

2014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섬기신 8, 9, 10, 12교구의 모든 일꾼들과 교구 식구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일찍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누구보다도 더욱 사랑하신 소망부의 선생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추우나 더우나 항상 모이기를 기뻐하신 살롬경로대학의 선생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금

씩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통일의 그 날을 기다리는 디아스포라부의 형제자매들과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곳에 일에 앞장서서 섬김의 분이 되신 식당/차량관리부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순례자 편집위원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맡겨주신 모든 일에 더욱 더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석남 목사

2014년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분들의 수고로 참으로 행복한 해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13교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교구장 장로님, 부교구장 집사님, 간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임원진을 비롯한 교구 일꾼 여러분, 예배위원장 장로님과 수많은 예배위원의 수고와 헌신, 선교위원장 장로님과 선교위원, 그리고 궂은 일을 도맡아 수고해 주신 이 집사님과 박 권사님, 국내외 88명

의 선교사님, 기도로 후원하는 28개 기도팀장님들과 팀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분자 양성부의 감동적인 수고, 충성의 본을 보이신 방송실, 멀티미디어부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COFFEA COFFEE 로 인해 교역자실에 행복의 향기가 넘쳤습니다. 2014년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새해에도 넘치게 베풀어 주소서.



황 광 목사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새해에는 더 머리 숙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분과 함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셨던 2, 11, 15교구 장로님을 비롯한 다락방 리더와 성도님들, 교회교육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를 다하셨던 교육위원회 모든 장로님과 섬김위원들, 장학회 장로님과 위원들, 1권사회 모든 분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셨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 된

2015년 새해,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유문건 목사

살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2014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릴 것밖에는 없습니다. 1교구와 16교구의 교구 장로님, 부교구장 집사님, 간사 집사님, 권사님, 다락방리더들과 새가족위원회의 열정적인 교사들, 교

구위원회의 신실하고 헌신된 봉사자들, 교회의 기둥인 스테반회원을 그리고 서울성경대학에서 사랑의 수고로 애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박영준 목사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해 감사의 글을 통해 드렸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원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함께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다. 함께하셨던 모든 분께 주님 안에서 사랑하

고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소중한 생명을 주셔서 많은 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중보의 도구로 타오르길 원합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선봉에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교구와 부서의 많은 섬김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비전으로 함께 도약하며 동역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원영 목사

먼저 2014년 한 해 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교구, 14교구 교구장님과 부교구장님, 간사님들, 그리고 다락방 리더들과 모든 다락방 식구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사역부서로 비전2020, 목회자 신학세미나, 소요리문답, 상담부에서 섬겨주신 모든 리더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8교구와 예배위원회의 소중한 만남

을 기대하고, 복된 만남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2015년에는 야메스처럼 삶의 지역을 넓히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경건을 훈련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준권 목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청년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청년부 모든 선생님님과 직장일과 학업으로 인해 바쁜 가운데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각 공동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락방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낸 다락방장들... 그리고 주일 늦은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여 아이를 안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사랑하

신혼가정공동체 지체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새해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 더 충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규현 목사

열정적인 비전과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으시다가 잊고계셨는데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간 되돌아보면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부족한 점, 아쉬웠던 점도 많았지만 참으로 감사드릴 일이 더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배다부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최선을 다해 서로 협력하는 성숙한 모습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드리는 예배다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합 예

배 시 통역으로 봉사하는 통역사와 교사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농인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과 배려로 베풀어 주신 박노철담임 목사님, 섬김위원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성경말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농인들을 위한 통독용 성경 DVD가 올해 8월 10일 이후까지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무료로 배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안성 목사

2014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당회원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유년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말로, 5년 동안 섬겼던 유년부를 떠나 초등부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과 협조, 뜨거운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성실하게 섬겨주신 유년부 모든 선생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4

년도에 신설된 유초등 연합 2부 예배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매주 65-70명 정도의 어린이가 모여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잘 정착하기까지 함께 노력해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주신 2부 예배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세종 목사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 고등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부모님을 초청하였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등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자녀들을 안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새 생

명 축제 기간중 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준비한 전도용품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감사합니다”하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지하게 복음의 내용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교육 일 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교회 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시면서 헌신하시는 고등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었던 감사의 한 해가 2014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양세라 목사

마음속으로 소원하던 서울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2014년 한 해는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한 영혼 영혼을 섬기다보니 한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믿음으로 서로를 성장 시킬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이었으며 저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잇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2015년 주님이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하는 조지 헛필드의 고백과 같이 더욱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배경애 전도사

2014년 한 해 동안 70인 전도대 17개 팀의 사역 현장에서 늘 함께 하고 이끌어주시는 여호와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최학인 전도위원장님, 최소희 권사님 늘 사랑과 기도로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70인 전도대 대장님, 부대장님들, 각 팀의 팀장님, 축호총괄팀장님, 축호부팀장님, 서기님, 회계님, 충성스러운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70인 전도대 모든 분들께 늘 열정과 충성함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유다서 1장 2절, “금후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해봅니다. 이 말씀이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 70인 전도대 대원들의 가정과 교회봉사부서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시길 기도합니다.



구본혜 전도사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권적인 계획과 섬리하심으로 한 해의 삶과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영·유아부와 어린이 수요일예배를 최선을 다해 최고로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도에도 저에게 맡겨주신 각 부서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예배자의 삶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성도님들께 가득 하시길 기도합니다.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구석구석에 가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서울교회에 청년1부 다윗공동체와 청년부 새가족부 교역자로서 첫 해를 보내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이 제게는 참으로 귀한 감사 제목입니다. 올 한해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바쁜 직장일과 학업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와 청년부의 크고 작은 일에 열심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청년부 임원단들과 다락방장들, 새가족 스태프들, 그리고 묵묵히 옆에서 뒤에서 세심하게 챙기시고 기도해주셨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많은 분들의 열심과 수고가 있었기에 올 한 해 젊은이 예배와 청년 다락방 모임이 이전 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단단해져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2015년 한 해도 더욱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장재원 전도사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 고등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부모님을 초청하였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등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자녀들을 안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새 생

명 축제 기간중 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준비한 전도용품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감사합니다”하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지하게 복음의 내용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교육 일 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교회 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시면서 헌신하시는 고등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었던 감사의 한 해가 2014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대은 전도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신학적 기초위에 세워진 서울교회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고, 청년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성장하게 하시며, 저희 가정에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새생명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시작하는 2015년 새해에도 청년부와 요한공동체, 조이찬양팀, 제자훈련, 금요기도회... 눈물과 기도로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에 뒤처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기도의 멍에를 다시 메고



김대호 장로

장로 임직을 받은 후 23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지만 주님 앞에 내 놓을 것이 없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23년의 남긴 자취를 뒤돌아보니 쓸쓸하게 웃어 버리는 미소가 입가에 맴 돕니다. 이제 더 머물러야 할 일도, 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작은 종은 떠나렵니다. 주님과 한발자국 거리를 두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은 당신의 사랑의 그리움으로 가득 할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뜨겁도록 주님을 사랑했는데 떠나지 못하는 무거

운 발걸음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감싸 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23년 동안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에 더욱 고독할 것입니다. 23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텅 빈 공허함이 몰밀듯 몰려 올 것 같습니다.

주님! 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남으소서.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작은 종 곁에 계시옵소서. 주님! 즐거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소서. 은퇴 후에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더 즐겁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부족한 작은 종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멍에를 다시 메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남으소서.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작은 종 곁에 계시옵소서. 주님! 즐거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소서. 은퇴 후에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더 즐겁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부족한 작은 종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멍에를 다시 메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윤봉준 장로

몇 년 전까지 주일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주변 이곳 저곳에 순례자를 들고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찬양대장 직분을 맡은 근래 몇 년간은 자주 나서기가 어려워 마음속으로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부산 큰덕 방문에서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을 기도해왔던 어르신들과 친지 가족분들 10여명을 전도하게 된 것이네요. 큰덕 근처 교회에서 주일 9시 예배를 드린 후 모두 교회에 등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존직 은퇴의 문을 열기 직전 손잡이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도했던 여러 기억들을 저에게 떠올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 그때 마다 들던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 공부와 전도를 외치시던 원로 목사님!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그 뜨거웠던 마음! 이제 때가 되어 향존 직분을 내려놓지만 새로운 기회가 저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던 이웃과 친지들을 찾아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전하고 전하는 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저를 밀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저희 세대가 뜨거운 열정으로 누렸던 시절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지만 같은 공간 속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체험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더욱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아 누리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이 되어



이갑진 장로

죄인 중의 죄인이요, 타다 남은 부지깡이만도 못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의 시무 장로로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무익하고 불충한 종으로서 은퇴하게 됨을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송구하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빛진 자로 떠나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퇴역하고, 의탁할 민간교회를 찾아 1년 반을 보내며 찾은 서울교회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군선교를 통해 교회를 섬기도록 거두어 주신 이종윤 원로 목사님과 사역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해 주신 박노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당회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선교의 현장에서 함께 수고 하였던 "비전 2020"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후원자이자 평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은퇴하는 박우주 권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5년 전 33년 간의 군 생활에서 첫 번째의 퇴역을 하였고, 이제 17년 간의 장로직분을 마감하면서 그 경우는 다르나, 두 번의 퇴역을 한 셈입니다. "두 번"은 저의 일생에서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군 장교로서 거쳐야 하는 3개의 필수교육과정을 한국 해병대에서 한번, 미국 해병대 한번, 각각 두 번씩을 거쳤고, 군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지 10년 만에 서울교회에서 다시 장로로 피택 되어, 두 번의

장로고시, 두 번의 장로임직을 받았습니다. 이 "두 번"의 과정들이 쓸모 없는 저를 단련시키시고, 들어 쓰이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에 수월찮은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제 시무장로를 은퇴하는 퇴역의 문턱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저는 자신에게 "나는 과연 주님의 충실한 제자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 되기에 한 없이 부족했던 자신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저는 그물을 버리는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에게서는 "Yes"를, 하나님께는 "No"라 하며,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버려둔 채, 세상의 좋은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주님을 따르려 했던, 무늬만의 제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은퇴가 아니라,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이 되어, 다시 배움의 길을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졸업장이 없는 이 평생의 학교에서, 주님께서 몸소 행하시고 보이셨던 순종의 길, 섬김의 길, 겸손의 길을 배우며 따르는, 새로운 여행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가슴 설레는 새 출발선에 서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역의 온전한 퇴역이란 우리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사역의 영원한 헌역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장로직을 은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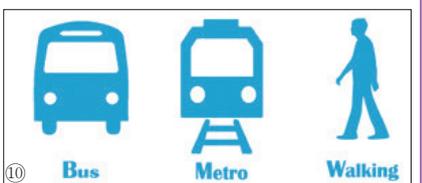
# 2014 서울교회 10대뉴스



① 팔라우 태풍피해 구호금 전달  
 ② 교회 향존직 임직식  
 ③ 홍해작전 - 천로역정  
 ④ 2014 사랑의 바자  
 ⑤ 사명자대회-VIP초대 새생명축제  
 ⑥ 제45회 목회자신학세미나  
 - "목회의 심장이 다시 뚝다"

⑦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23주년 기념주일  
 - 성찬식  
 ⑧ 다양한 연말 성탄 행사  
 ⑨ 서울교회 가정사역, 새롭게 시작되다  
 - 영·유아부 '영·유아 어머니 하트스쿨',  
 유치부 'BBS(비블리오 바이블 놀이학교)', 고  
 등부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 청년부 '신

한가정공동체수련회 후속모임과 결혼예비학  
 교', 모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  
 힐링스쿨'(2월 23일자) 등 다양한 가정사역이  
 진행  
 ⑩ B.M.W.운동  
 · 사진 : 손동혁 집사 최영철 집사  
 이준태 집사 손경화 집사





# 송구영신예배

## 12월 31일(수) 오후 11시 20분, 본당

2015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2014년 12월 31일 밤 11시20분 본당에서 시작된다. 11시부터 소등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11시20분부터 시작되는 송구영신예배는 박노철 담임목사가 인도한다.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11시 소등이 되기 전에 기도로 준비

하기 바란다. 또한 송구영신예배는 인터넷(서울교회 홈페이지 <http://seoulchurch.or.kr> 메인화면→송구영신예배 생중계)으로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으니 해외에 있는 성도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성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란다.

### 향존직 은퇴 · 장로안식년 - 찬양예배 시 특별제직회 - 찬양예배 후 / 다음 주일은 공동의회로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이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와 집사 권사들의 은퇴식이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은퇴하는 분들은 서울교회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로 모시게 된다. 오늘 은퇴하는 분들은 장로 3명- 김대호 윤봉준 이갑진 장로, 2015년 한 해동안 안식년을 갖는 장로는 최학인 조정식 신영식 장로 세 명, 일년간 휴무

장로는 임상현장로이다. 은퇴집사는 일곱 명으로 김대웅 류중관 박상운 서상근 전광영 한길동 한중현 집사, 은퇴권사는 열두 명으로 구연복 김숙행 김정자2 김지숙 김초일 박동희 박우주 박순자1 배정자 이민자 전용순 최죽희 권사 등이다.

또한 찬양예배 후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가 열리며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인다.

## 2014년 장한 어머니상(다산·개근)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우리교회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장한 어머니상을 시상하고 있다. 금년에도 부모가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된 성도로 자녀를 셋이상 낳은 가정의 어머니(출산일: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1일)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셋째 또는 넷째 아이의 장학금 통장을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시상한다.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또한 믿음의 어머니로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르치며, 2014년 한 해 동안 자녀들이 교회학교 예배에 개근하도록 양육하였기에 교회는 그 노고를 치하하며 함께 시상한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다산 : 4교구 정은영 집사(유지성) 7교구 진주희 집사

(최세린) 9교구 정효진1 성도(김진호) 12교구 이정현3 집사(최무건)

• 개근자 : 130명 어머니 : 90명

강남회 구진영 권수정 권진순 김민아 김민아3 김복순 김안성 김양경 김연화 김영현 김윤미1 김은경 김은정 김은정2 김의정 김지현 김혜란 김현정15 김현주 김희1 김희경2 김희정6 남재은 노애리 박길자 박미숙 박영애 박은미 박찬미 소은희 손영희 손지희 송경민 송명일 송미애 송지윤 신민숙 신소영 안성희 안재희 양세라 양세정 양종숙 오선혜 오숙영 오용이 우스라 유시현 유정민1 음혜경 이갑연 이남용 이민경 이선화6 이성혜 이수정 이양숙 이에리자 이현미1 이영선 이정희 이주영8 이지혜 이진영3 이진희3 이현미1 이현정1 이화용 임춘자 장미자 장윤희 전미경 정관옥 정기자 정윤용 정윤희 정윤순 정진영2 조경숙 조성경 조현정 조희진현정1 최경선 최미진 최춘숙 한주희 황정애 황혜진1

##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 1월 5일(월)~10일(토) 새벽 5시 / 강사: 박노철 담임목사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5일(월)부터 10일(토)까지 열린다. 한 해를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

름다운 일이다. 강사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선다. 새해 1년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이 될 것이다.

## 주간성경공부 수료

###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강신행 강영순 국산옥 김대웅 김동진 김미자 김복녀 김상복 김선자 김수원 김순진 김영례 김인순 김재중 김정용 김경자 김진숙 김찬용 김태욱 김형택 김홍두 김활라 김희진 남정열 남해경 류순인 문순자 박명석 박성희 박우욱 박인자 박정자 배은희 배재송 백명자 서명희 손병석 손성실 손용문 송성식 송희경 신정순 안선희 안인호 안창휘 여욱기 여현진 오영자 오정숙 원명희 유근중 윤선희 이경구 이경화 이경희2 이경희3 이광열 이규희 이금순 이부자 이상욱 이상은 이순 이순례 이승민 이승희 이영립 이영숙 이영희 이옥희 이은선 이정연 이춘희 이혜순 이흥기 이화숙 임낙식 임범창 임분도 임선철 임순자 임유자 임홍규 장양일 장영순 장정숙 장정옥 전배호 정복순 정봉금 정연택 정영애 정희순 조애자 조연숙 조정옥 주동재 주완숙 주완인 차인화 최광혁 최규초 최금봉 최낙준 최무순 최미아 최봉애 최영란 최형열 최태욱 최학인 홍건표 홍광숙 황보주자

## 2014년 70인 전도대 전도상

70인 전도대 축호인내팀(팀장 정미애 집사 외 13명)

## 2014년도 소요리문답부 수료자

강만순 강윤옥 고은옥 김관철 김경숙 김경자 김진달 김재배 김동진 김명숙 김명자 김미숙 김미자 김상태 김영숙 김지은 김혜란 노성태 문경덕 문행순 민의랑 박경진 박미영 박미숙 박복순 박용훈 박윤지 박희서 배은정 백승호 백정순 백혜숙 성부덕 송인덕 신철호 신성수교 양종숙 오행숙 유치열 유운순 윤관희 윤복남 윤정민 윤정희 이미숙 이상은 이승연 이성희 이영란 이진리 이홍숙 이광열 임우택 장석관 정영돈 전용순 전유언 정민숙 정준혜 조만자 최명남 최용준 (62명)

## 동정

■ 이준원 원로목사는 12월29일(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회의에 참석한다. 12월31일(수) 갈보리 교회특별새벽기도회 설교한다. 미래한국이사회 개최설교한다. 2015년 1월 1일(목) 섬김교회 송구영신예배설교한다. 1월 2일(금) 진위중고 신년감사예배설교한다. 1월 3일(토) 사랑의 쌀운동, UBU이사회에서 개최설교한다. 종교개혁500주년 실행위원 신년하례회를 갖는다.

■ 선출 : 6교구 최성을 집사(인천대학교 총장) 12월22일 전국 30개 대학이 참여하는 그린캠퍼스총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득녀: 3교구 오도일 성도 임현영 집사

■ 주일식당봉사: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12.28) 엘리야선교회 뱀피전도회(12.

■ 금주의 식사 제공: 이창기 성도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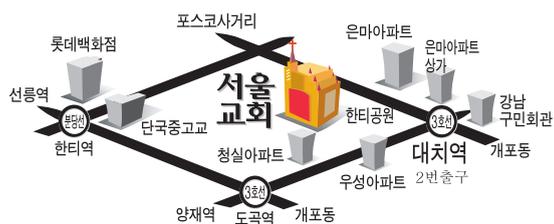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2. 송구영신 예배에 모든 성도들 다 참석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할 마음으로 받도록
3. 은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며 그 분들이 뿌려놓은 섬김의 씨앗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